

■ 편집후기(編輯後記)

- ◆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계속평가에서 우리 학술지 『日本語學研究』가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등재학술지유지 판정’을 받았다. 학술지계속평가를 헌신적으로 준비해주신 회장님 이하 집행부 및 편집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중한 옥고를 투고해 주신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 및 학술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李)
- ◆ 이번 58집에는 일본인 여자대학생 대화에 나타난「思う」의 사용 양상, 한국 대학에 있어서의 중급작문수업 현황과 과제, 계절학기 교양일본어 수업 실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발행 국어독본에 관한 일고찰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흥미로운 논문들이 눈에 띈다. 귀중한 연구논문을 투고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발전해 가는 학회지가 되도록 매진하겠다. (姜)
- ◆ 이번 58집은 투고자 입장에 있었던 탓에 편집회의에서도 심사과정에서도 제외되어 한 발 떨어져 있었다. 편집 관련으로 해오던 일들이 없어져 물리적으로 몸은 편했지만(!!) 한사람이 빠진 자리를 메꾸기 위해 평소보다 더 수고해주시는 다른 편집위원 여러분들께 너무나 송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기간 중에 학술지 평가라는 큰 산을 넘어 우수한 점수로 등재지로 유지되었다는 소식에 함께 긍지와 보람을 느낀 시간들이기도 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辛)
- ◆ 이번 58집에는 3편의 음운론, 5편의 일본어교육, 1편의 통사론, 2편의 사회언어학 및 화용론이 게재되었다. 특히, 일본어교육에서 상급회화수업, 중급작문수업, 비즈니스 일본어교재, 계절학기 교양일본어수업 등 실제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내용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들이 많아서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등재지 유지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보다 우수한 학술지로서 발전되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鄭)
- ◆ 57집과 58집을 담당하면서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들의 아낌없는 도움과 격려를 받았다. 편집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함께 만나서 일하는 시간이 소중했고 진심으로 즐거웠다. 그리고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지 유지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 뿌듯하고 기쁘다. 학술지 평가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귀한 옥고를 투고해 주신 회원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金)